

삭감 혹은 동결... 혹한의 KIA 스토브리그

2연속 8위...연봉, 작년 20% 이어 올 7% 또 삭감...전체 7위

포스팅 포기 양현종, 김광현과 인상액 비교에 구단 '속앓이'

KIA의 스토브리그가 잠잠하다. 그 흔한 연봉 계약 발표도 없이 연말이 지나가고 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민 때문이다.

늦은 출발에 비하면 KIA의 연봉 계약 진행 상황은 빠른 편이다. 올 시즌 KIA는 예년과 달리 마무리 캠프 이후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섰다. 연봉 협상 과정에서 선수들의 집중력과 사기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캠프가 끝난 뒤 테이블을 차린 것이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계약은 거의 마무리 단계다. 대부분의 선수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금액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가장 관심이 집중될 이들의 계약서의 빈칸 탓에 일괄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2년 연속 8위라는 초라한 성적 탓에 선수단의 연봉 총액은 또다시 삭감됐다. 올 시즌 KIA의 연봉 총액은 20%가 줄었다. 평균 연봉은 9580만원으로 전체 7위였다.

내년 시즌 평균 연봉은 더 내려간다. 올 시즌에도 8위를 찍으면서 연봉 총액이 7%가량 줄어든 게 됐다. 고액 연봉자들의 연봉 인상률은 그만큼 고만될 수밖에 없다. 특히 올 시즌 연봉 고가 1·2·3위의

계약이 머리 아픈 속제로 남아있다. '프리미엄' 고민도 더해졌다.

KIA의 고과 1위는 에이스 양현종이다. 안치홍과 나지완은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팀을 대표하는 세 선수의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계약은 아직 진행중이다. 나지완은 줄다리기에 끝까지 소폭 인상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다. 팀을 상징하는 4번 타자로 확고히 자리를 굳히며 올 시즌 자신의 최고 기록을 쓰기는 했지만 팀 성격이 걸린다.

이달 초 경찰청에 입대한 안치홍의 빈칸은 양현종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전망이다. 구단은 백지위임을 한 안치홍의 연봉에 대한 기준은 정해놓았지만 고가 1위 양현종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 고과 2위 안치홍의 상대적인 금액 조율이 불가피하다.

결국 양현종이 마지막 퍼즐이다. KIA는 그동안 연봉협상을 하면서 원칙을 강조해왔다. FA 프리미엄이라는 명목 아래 내부 선

수 관리에 나섰던 다른 팀과는 달리 KIA는 원칙주의를 내세워 철저히 고가를 잣대로 협상을 진행했다. '프리미엄'은 없다는 게 구단의 공식 입장이었다.

팀의 마당쇠와 에이스로 꾸준히 활약을 했던 윤석민도 4관왕, 포스팅, FA 프리미엄과는 거리가 멀었다. 윤석민이 해외진출에 앞서 KIA에서 받은 최종 연봉은 3억8000만원이었다.

원칙을 강조했던 KIA는 양현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포스팅 만류에 따른 사기 진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프리미엄 적용에 적극적이었던 SK가 해외진출이 보류된 김광현의 연봉을 2억7000만원에서 6억까지 올려주면서 상대적인 비교도 불가피하게 됐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인상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고수했던 구단 원칙과 내부 형평성도 중요한 만큼 적정 금액을 찾는 게 큰 숙제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



강정호, 해적선 탔다

55억 배팅 구단은 '피츠버그'...다음달 20일까지 독점 계약 교섭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강정호에 대한 교섭권을 획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피츠버그 구단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내년 1월 20일 오후 5시, 한국시간으로 21일 오전 7시까지 강정호와 독점 계약 교섭을 할 수 있다. 이 기간 계약에 실패하면 피츠버그 구단의 협상권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강정호에 대한 차기 포스팅 요청은 내년 11월 1일까지 할 수 없다. 강정호는 일본

프로야구 진출을 모색하거나 넥센에 잔류하게 된다.

관련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최초 보도한 미국 CBS 스포츠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존 헤이먼은 놀라운 결과라고 전하며 "피츠버그는 강정호에 대한 입찰에 나설 팀으로는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유격수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피츠버그의 내야진이 외형상 무척 견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헤이먼은 "피츠버그는 유격수 조디 머서를 뒷받침할 백업 유격수 손 로드리게스를 보유하고 있고 2루에는 닐 위커, 3루에는 조시 해리슨이 버티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지난 시즌 한국프로야구에서 117경기를 뛰면서 40홈런을 날린 강정호의 파워를 고려하면 다음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피츠버그가 강정호의 영입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프로야구 출신 야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하는 강정호는 올 시즌 넥센에서 117경기를 뛰면서 타율 0.356에 40홈런, 117타점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133년 '최장 역사'...월드시리즈 5회 우승 NL 강자

■ 피츠버그 어떤 팀

미국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 소속된 프로야구 팀으로, 1882년 창단하였다.

연고지는 펜실베이니아주(州) 피츠버그. 메이저리그 구단 가운데서도 긴 역사를 지닌 팀이다.

원래 팀명은 피츠버그 엘레기니스(Pittsburgh Alleghenies)인데, 1891년에는 2루수 루이스 비어바우어를 강타하다시피 데려오면서 '해적들'이란 이름을 얻었다.

1890년대 '최악의 팀'이었던 피츠버그는 이후 2개 팀을 흡수, 1900년대 초 내셔널리그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피츠버그는 올 시즌 88승 74패(승률 0.543)를 기록,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2위에 올랐다.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는 올 시즌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샌프란시스코에 탈미를 잡했지만 2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오르는 등 약체였던 이미지를 떨치기 위한 전력 보강에 한창이다.

월드시리즈 우승을 모두 5회(1909, 1925, 1960, 1971, 1979

년) 차지했고, 지구우승은 9차례(1970, 1971, 1972, 1974, 1975, 1979, 1990, 1991, 1992년)나 일컫는다.

대표적인 스타는 70년대 강팀으로 이끈 윌리 스타젤, 로베르토 클레멘테가 있다.

특히 메이저리그는 매년 선행 봉사를 한 선수에게 명예의 전당 헌액자인 클레멘테의 이름을 딴 '로베르토 클레멘테 어워드'를 시상한다.

또 다른 스타로는 통산 홈런 1위의 배리 본즈가 있다. 1985년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6순위로 피츠버그에 입단한 본즈는 MVP를 두 차례나 오르는 등 7년간 타율 0.312 176홈런 556타점 251도루라는 괴물같은 성적을 남긴 뒤 1993년 샌프란시스코로 이적했다.

하지만 피츠버그는 1992년 지구 우승을 끝으로 암흑기에 접어들었다.

특히 20년간 단 한 번도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했고, 대부분 지구 최하위에 머무는 수모를 겪는다. 영구 결번 선수는 클레멘테(21번)를 포함해 10명의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내야진 탄탄...2·3루 섭렵 전천후 백업요원 활용할 듯

■ 강정호 영입 왜

무성한 추적을 받았던 강정호(27·넥센 히어로즈) 영입전에 서 승리한 메이저리그(MLB) 구단은 피츠버그 파이리츠였다.

담당 스카우트가 올 시즌 목동구장을 찾아 강정호의 기량을 점검하는 모습이 눈에 띄긴 했지만 피츠버그가 500만 달러가 넘는 포스팅(비공개 입찰) 비용을 적어낼 정도로 적극적인 영입에 나설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았다.

유격수 자리에 전력 누수가 발생하거나 취약 포지션으로 분류된 메이저리그 구단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피츠버그에는 주전 유격수 조디 머서가 버티고 있고, 손 로드리게스라는 백업 유격수까지 보유하고 있다. 2루수 닐 위커는 피

츠버그의 프랜차이즈 스타고, 3루수 조시 해리슨은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을 소화했다.

머서는 올해 149경기에서 타율 0.255, 12홈런, 55타점을 기록하며 유격수로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위커는 137경기에서 타율 0.271, 23홈런, 76타점을 수확하며 데뷔 이래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기록했다. 해리슨은 타율 0.315, 13홈런, 77타점을 기록하며 팀 타선을 이끌었다.

미국 현지에서 의외라는 반응이 더 많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정호가 비접고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피츠버그의 내야진은 탄탄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피츠버그가 도박을 좋아하는 구단은 아니라는 점이다. 강정호는 2루수와 3루수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하고 있다. 가장 현실적인 추정은 강정호가 피츠버그의 불박이 내야수들의 백업으로 뛰는 것이다.

2루수 위커가 고질적인 허리 부상에 시달려왔고, 해리슨 역시 올 시즌 갑작 활약이 내년 시즌에도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유격수 머서는 메이저리그 평균 수준의 유격수에 타격에 기복이 있는 편이다.

결론적으로 피츠버그는 내야진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강정호 영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메이저리그 구단이 강정호에게 바라는 것은 수비력이 아니라 아시아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는 파워 넘치는 공격력이다.

미국 현지에서는 강정호의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3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평범한 선수 대신 강정호가

기용됐을 때 팀에 3승을 더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피츠버그가 기존 내야수 중 한 명을 트레이드 카드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강정호의 독점 협상권을 따냈을 가능성도 있다.

피츠버그의 올 시즌 연봉 총액은 7811만1667달러로 메이저리그 전체 30개 구단 가운데 27위였다. 돈 많은 구단이 아닌 피츠버그는 강정호에게 포스팅 금액으로 500만 달러 이상을 써내고 연평균 5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원하는 강정호 측과 협상을 앞두고 있다.

그만큼 피츠버그가 강정호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또 그만큼 강정호의 연봉 협상이 난항을 빚을 가능성도 커 보인다. /연합뉴스